



주일설교 말씀나눔지

2023. 5. 14

「마가복음 신다섯 번째 말씀」

결국 무엇이 두려운가?

What is Ultimately Fearful?

마가복음 14:66-72

-
- 66.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 67. 베드로가 불 쪼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 68.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 69.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 70.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 71.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 72. 답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답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

1.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찰스 커밍스가 ‘고난을 만나면 고난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2. C.S. 루이스는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나 사랑의 자질을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신다. 모르는 쪽은 오히려 나였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으나, 베드로는 모르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3. 하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부르셨나요, 모르고 부르셨나요? 우리 자신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떠하셨을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부르셨는데 우리 자신이 자신에 대해 관대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4.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까(눅22:61).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셨을까요? 전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읽어보면서(눅 22:31-32)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 확증해봅시다.

5. 부르심과 자격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자격을 요구하셨나요?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6. 다시 베드로에게 집중해봅시다. 베드로는 결국 무엇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이 잡하시기 전날까지 제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공’이었습니다.(눅22:24) 결국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실패요, 더 궁극적으로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할까요?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Central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Kansas